

■ 영화



ALIENOID: RETURN TO THE FUTURE (외계+인 2부)

- 감독: 최동훈
- 출연: 류준열(무룩 역), 김우빈(가드/썬더 역), 김태리(이안 역), 소지섭(문도석 역), 염정아(흑설 역), 조우진(청운 역), 김의성(자장 역), 이하늬(민개인 역), 신정근(우왕 역), 이시훈(좌왕 역), 김대명(썬더 목소리 역), 진선규(능파 역), 윤경호(삼식이 역)
- 러닝타임: 122분 ● 등급: NR-12
- 개봉일: 2023년 1월 26일 ● 장르: SF, 액션, 판타지

[줄거리]

인간의 몸속에 가둬진 외계인 죄수의 탈옥을 막으려다 과거에 갇혀버린 '이안'은 우여곡절 끝에 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신검'을 되찾고, 썬더를 찾아 자신이 떠난 미래로 돌아가려고 한다.

한편 이안을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는 '무룩'은 자신의 몸속에 느껴지는 이상한 존재에 혼란을 느낀다. 그런 '무룩' 속에 요괴가 있다고 의심하는 삼각산 두 신선 '흑설'과 '청운', 소문 속 신검을 빼앗아 눈을 뜨려는 맹인 검객 '능파', 신검을 차지하려는 '자장'까지 '이안'과 '무룩'을 쫓기 시작한다.

한편 현대에서는, 탈옥한 외계인 죄수 '설계자'가 폭발 시킨 외계물질 '하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연히 외계인을 목격한 '민개인'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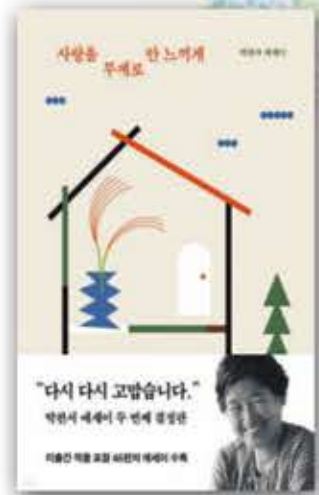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하바로 폭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분. 시간의 문을 열고 무룩, 썬더, 두 신선과 함께 현재로 돌아온 이안.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



■ 신간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영원한 현역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결정판 두 번째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가 출간되었다. 박완서 작가는 1970년 <나뭇잎>을 시작으로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영원한 현역 작가'로 여전히 우리 가슴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중일전쟁, 2차 대전, 6.25 등 박완서 작가를 스쳐 간 어마어마한 문화의 부피가 소설 안에 묵직하게 새겨졌다면, 그의 산문에서는 일상 속 다채로운 풍경과 소박하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박완서 작가의 삶이 더욱 짙게 묻어 난다. ('출판사서평' 중에서)

■ 박완서 지음
| 세계사컨텐츠그룹 펴냄 | 396쪽



웰컴치과그룹



- 이주영(JustinLee)DDS
- 로마린다 치대 졸업

B B B 만을 고집하는 웰컴치과
Best Price Best Quality Best Service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실력이면 **실력!** 모두 자신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웰컴치과는 **친절합니다.**
명문대 출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치료해 드립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PPO 및 각종보험 환영

- 메디칼
- 앤섬블루크로스
- 휴메나 골드플러스
- 유나이드 헬스케어 (AARP Medicare Advantage)
- 클레버케어
- PPO Insurance



애나하임

한인타운

714.552.5373

213.381.2827

1201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2500 W. 8th St. #106
LA, CA 90057